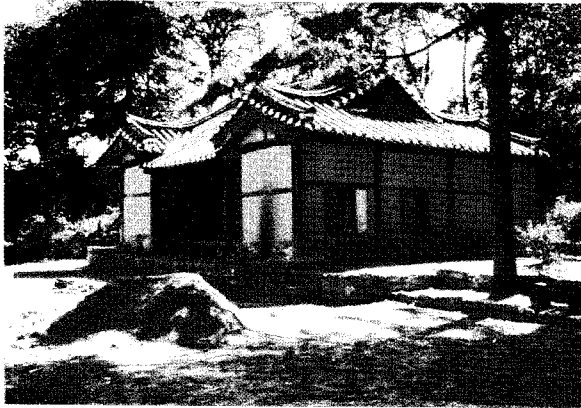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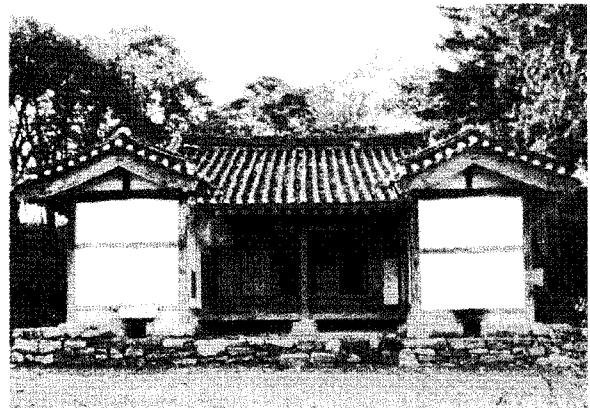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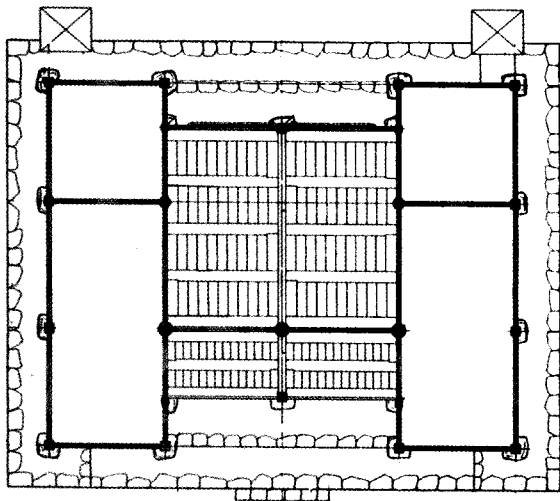
## 한국주거의 재발견



▲ [그림 1] 맹씨행단 전경



▲ [그림 3] 맹씨행단의 폐쇄적 안대청



▲ [그림 2] 맹씨행단 평면도

1316~1388) 장군의 손자사위였던 고불 맹사성(古佛 孟思誠 : 1360~1438)의 주택으로 몇 차례의 중수과정을 거치며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평면은 그자를 옆으로 누인 형식으로 2칸 규모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방을 배치하고 이들 방의 북쪽으로 각각 1칸씩의 고방으로 배치하였다. 대청을 폐쇄적으로 구성하여 전면에 창호를 설치한 점이나 방의 전면으로 난방과 취사를 겸한 부엌이 없다는 점 등에서 일반적인 조선시대 주택과는 다른 점이 발견된다. 공간의 기능에 따라 동별로 구분되어 있던 고구려의 고분벽화의 주거형식이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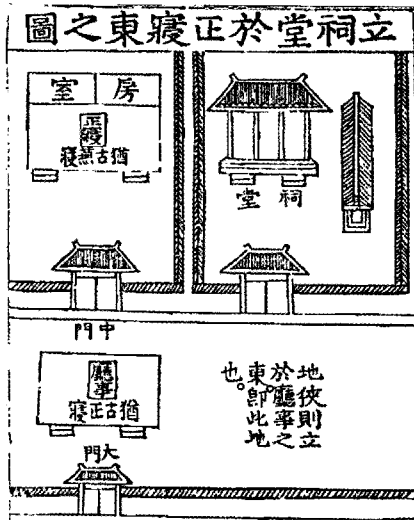
또한 대청 전면에 창호를 설치하여 2칸의 대청을 폐쇄적 공간으로 만든 것은 후대에 안대청이 행례공간의 중심으로서 개방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과는 다른 대청의 원초적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안대청의 폐쇄성은 영호남 지역의 개방적 안대청과도 차이가 있어서 지역적인 특성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 ■ 가례서(家禮書)의 간행과 반가(班家)의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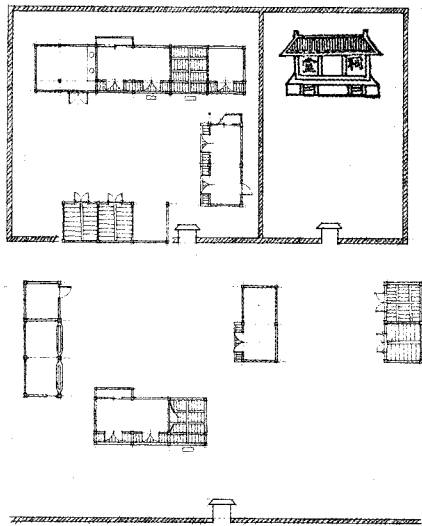
16세기말에서 17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간행되었던 가례서들은 주자의 『家禮』를 주해한 것으로 기본적인 내용과 편제는 이를 따르되 부분적인 해석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특히, 예학의 본향이었던 충청지역에서는 김장생을 위시한 많은 예학자들이 가례의 주해서들을 간행하였으며, 『喪禮備要』를 비롯한 『家禮輯覽』과 『家禮原流』 등의 가례서는 당시 많은 유자들과 사람들에게 실천유학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행례의 실천공간으로서 반가의 형식과 배치에도 이들 가례서는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반가의 주요공간을 구성하는 사당, 정침, 청사(사랑채) 등의 배치관계가 이들 가례서의 도설에 잘 남아 있으며, 이러한 도설에 대한 해석은 실제 반가를 계획하고자 하였던 유자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되었다. (그림 4)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 유계 등과 함께 호서지방의 예학을 대표하는 소위 호서산림(湖西山林) 5현으로 일컬어

## 한국주거의 재발견



▲ [그림 4] 사당 정침 청사의 위치관계  
(출전: 김정생, 가례집람 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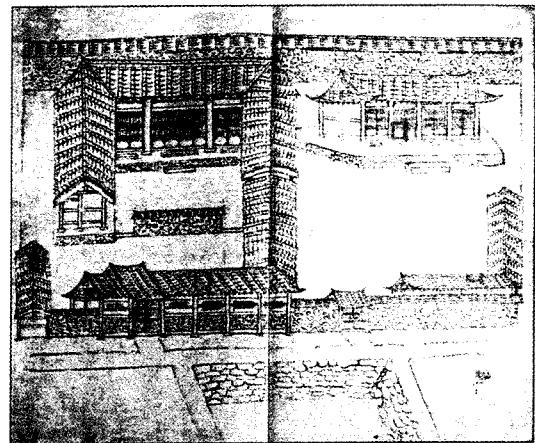
▲ [그림 5] 이유태 정훈의 내용분석과 복원도  
(출전: 김기주, 09건축역사학회 춘계논문집)

지는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 1607-1684)는 그의 유배 기간 중 자손들이 준수할 규범으로 삼고자 『庭訓』을 저술하였다. 그 내용 중 가례를 근거로 한 ‘거실지의(居室之儀)’는 당시 사대부의 실천의례공간인 주택을 잘 해석하고 표현한 것이다. (그림 5)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사당을 여성들의 생활공간인 정침(안채)의 동쪽에 배치하고, 또한 남성들의 공간인 청사(사랑채)는 정침의 남쪽에 배치함으로써 내외구분과 의례의 중심공간을 명확히 하였다.

### ■ 튼 □자 주택과 □자형 안채

충청지역 반가의 특징 중 하나는 □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혹은 중문채)가 함께 튼 □자 형태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다양한 형식의 안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청지역 반가의 특성이자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연원이 분명하고 다른 지역에 비하여 사례도 많은 편이다.

파평윤씨 서윤공파 고택에는 ‘효경당계축문(孝敬堂啓築文)’이 전하고 있는데, 그 안에 그려진 가도(家圖)는 1675년에 완성된 것으로 □자형 안채와 一자로 꺾인 행랑채 및 一자형 사랑채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준공 당시의 원형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림 6) 3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안방과 건넌방이 있는 안채는 맹씨행단에서부터 이어지는 대청형 형식과 안채의 전면에 설치



▲ [그림 6] ‘효경당계축문의 부감도’  
(출전: 안준호 외, 주거학회논문집,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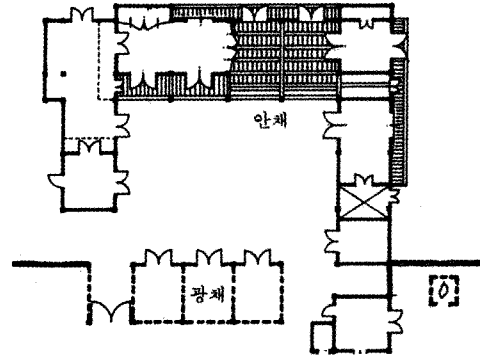


▲ [그림 7] 동춘선생 고택의 폐쇄적인 안채 대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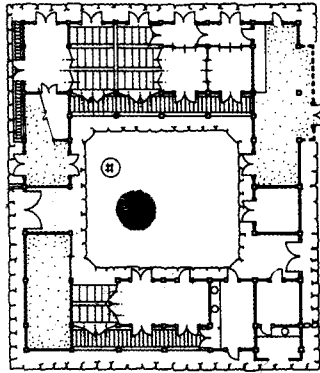
## 한국주거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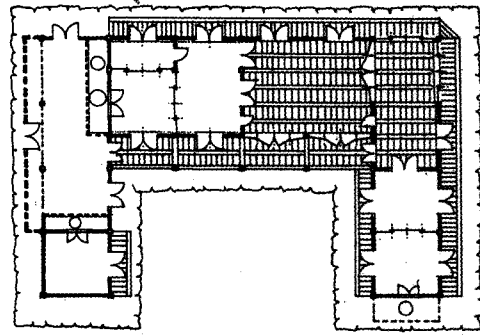
▲ [그림 8] 충남 논산 명재고택 (대청, 개방형)



▲ [그림 9] 충북 괴산 김기응 가옥 (비대청, 개방형)



▲ [그림 10] 충북 청원 유계화 가옥 (비대청, 폐쇄형)



▲ [그림 11] 충북 영동 김신조 가옥 (비대청, 폐쇄형)

된 창호에 의한 폐쇄적 대청 공간구성이라는 계통을 이어가고 있다. 송준길의 주택이었던 동춘선생 고택의 경우 역시 이와 같이 3칸의 대청을 중심으로 ㄱ자형의 안채와 전면에 창호를 설치하여 폐쇄적 공간을 구성하였다. (그림 7) 윤증의 주택이었던 명재고택의 경우에는 안대청을 중심으

로 ㄱ자형 안채가 구성된 것은 동일하지만 대청의 전면에 창호가 없이 트여있어 개방적이라는 점이 다르다.

한편, 이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건축되었던 주택들의 경우에는 안방과 대청이 함께 안채의 중심공간을 이루는



▲ [그림 12] 동춘고택 안채의 내외담 (출처: 이왕기, 한국의 건축문화제)



▲ [그림 13] 건재고택 안채의 내외담 (출처: 송기홍, Newsis)

## 한국주거의 재발견

비대칭형 안채로 ㄱ자형으로 된 것들도 있다. 영동의 김선조 가옥이나 청원의 유계화 가옥 및 괴산의 김기응 가옥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이들 중 김기응 가옥은 대청의 전면이 트여 있는 반면 나머지 두 가옥은 대청의 전면에 창호가 설치되어 폐쇄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 ■ 내외(内外)사상의 구현 - 내외담

예학을 중시하였던 이곳 충청지방에서는 남녀의 내외 사상 역시 물리적인 형태로 반영되었다. 안채와 사랑채로 구분되는 것에 더하여 물리적 시설로 담장을 쌓음으로써 시각적인 차폐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이다. 회덕의 동춘고택의 안채와 외암리 마을의 건재고택 안채에는 그러한 내외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담장의 일부에 굴뚝까지 시설하여 기능과 의장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그림 12, 13, 14) 또한 앞서 살펴본 이유태의 『庭訓』에서도 다음과 같이 안마당의 끝에 그러한 격담을 설치하되 그 높이는 안채의 뒷마루에서 말의 배가 안보이는 정도로 하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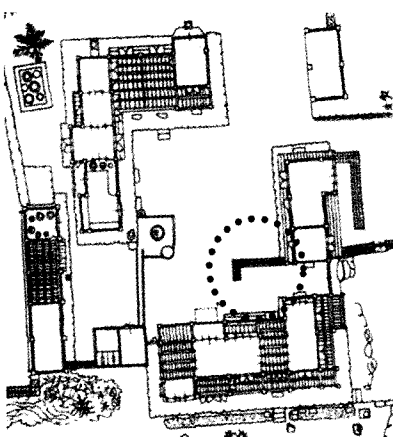
‘或馬廄 置于正寢之前 其間有庭 庭末築小墻 而高下 則坐寢堂 使之不見馬腹 牧奴以牆外行之’

한편, 내외담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여성들의 영역인 안채와 밖을 시각적으로 차폐하기 위한 방식으로 중문간의 동선을 한번 정도 꺾어서 설치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명재고택과 이남규 가옥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인의 시선이 직접 안채에 들지 않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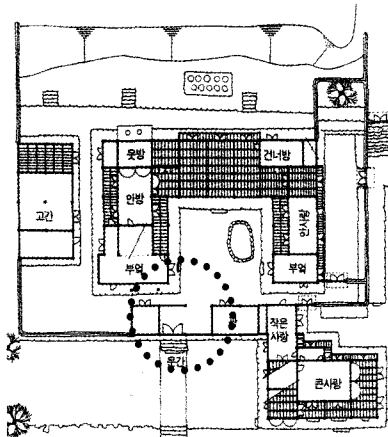


#### 참고문헌

1. 김장생, 『家禮輯覽』
2. 이유태, 『家庭遺訓』 (국가기록유산 홈페이지)
3. 문화재관리국,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편)』, 1985
4. 신영훈, 『한국의 실림집 上』, 열화당, 1989
5. 이왕기, 『한국의 건축문화재(총남편)』, 기문당, 1999
6. 김봉렬, 『삶과 삶의 공간 2』, 이상건축, 1999
7. 김기주 외, 『16세기를 전후한 반가의 형식변화와 가례』, 건축역사연구 4, 1993
8. 김기주, 『초려 이유태의 『庭訓』 중 『居室之儀』 분석과 주택의 복원』, 2009 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포럼 논문집
9. 안준호 외, 『효경당계축문에 의한 파평윤씨 서윤공파 고택의 원형고찰』, 주거학회논문집 18권,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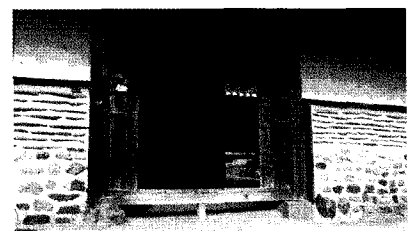
▲ [그림 14] 건재고택 안채의 내외담  
(출처: 이왕기, 한국의 건축문화재)



▲ [그림 15] 명재고택의 중문간  
(출처: 김봉렬, 삶과 삶의 공간)



▲ [그림 16] 이남규 가옥의 중문간



▲ [그림 17] 명재고택의 중문간